

광주시, 생성형 AI로 행정 효율성·창의력 높인다

공직사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 GPTs기반 ‘AI대변인’ 자체 개발 실무 활용도·만족도 모두 높아 “시민 서비스 질 제고 등 효과”

광주광역시가 올해 상반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본격화하며,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창의력 향상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6월까지 시청 53개 부서 165명을 대상으로 챗GPT, 퍼플렉시티

(Perplexity), 미드저니(Midjourney), 감마(Gamma)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직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원 대상자 165명 중 약 95%가 이용하고 있는 챗GPT는 보고서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 사례 수집 등 기획·리서치 분야에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기획서 작성 55건, 통계 분석 122건 등에 활용됐으며

사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는 업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근거를 요하는 정보 조사에, 미드저니는 디자인 시안 제작에, 감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구성에, 냅킨AI는 텍스트 기반의 도식화에 활용되는 등 공직 내 생성형 AI 도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직원들의 생성형 A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지피티에스(GPTs)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인 ‘AI 대변인’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보도자료·정책 설명문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등 실무 전반에 활용, 공공홍보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1일 기준) AI 대변인은 10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공 사례들을 공무원 업무누리집 내 ‘디지털 실험실(D-LAB)’을 통해 전 부서에 공유하고, 인공지능 실무교육과 콘텐츠 구매 등을 연계

해 디지털 업무환경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디지털 신기술 이용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직원이 생성형 AI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생성형 AI는 행정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시전반에 일상화된다면 행정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돌아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복날 성수기 가금 도축장 연장 운영

닭·오리 수급 안정 주력 조기 개장·휴일 운영 추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닭, 오리 등 가금육류 소비량이 20% 이상 늘어나는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8월 중순까지 가금 도축장 휴일 개장 등 연장 운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집중되는 도축 물량을 적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금 도축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새벽 5시로 앞당기고 작업 종료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평소보다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토·일요일과 주중 공휴일에도 개장해 복날 성수기 동안 가

금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과 급증한 도축 물량 때문에 도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 내 환경과 식육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유발 미생물 검사를 강화, 일반미생물 수 증감 및 식중독균 노출 여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식육 항생제 잔류물질 검출을 위한 신속검사키트도 적극 활용해 식육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 도축된 가금류는 9273만7000마리며, 연간 도축 물량의 30%인 2760만7000마리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도축·유통됐다.

오지현 기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Food 산업관’ 운영

31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판로 확대·해외진출 지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식품 관련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박람회장에 운영할 예정인 케이푸드(K-Food) 산업관과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푸드 산업관은 푸드테크와 미식, 식품 산업 관련 우수한 제품의 전시·판매·홍보를 위한 산업 교류의 장으로 치러진다. 모집 분야는 푸드테크와 케이푸드, 미식인(人), 3가지로 나뉜다. 참가 기간은 3회차로 나뉘며, 1회차는 10월 1~12일, 2회차는 10월 14~19일, 3회차는 10월 21~26일로 진행된다.

참가 기업에는 기본부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독립부스는 부스당 300만 원(부가세 별도) 참가 비용이 있으며, 전남 기업의 경우 참가비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8

월 중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도 함께 모집해 식품기업의 해외 유통 채널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도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9월 중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해 선정돼 10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케이푸드 산업관, 수출상담회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expo-namdonice.com)과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이 차린 식탁 남도, 지속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지현 기자



영광 불갑사 만당 종사 영결식 엄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 오전 영광 불갑사 취암당 만당 종사 영결식에서 합장(合掌)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조사(弔辭)를 통해 “만당 종사의 삶은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정진이자, 중생을 위한 보살행이었고, 불갑사를 전국적 성지로 일구고, 한국불교가 대중과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닦으셨다”고 말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석유화학·철강 근로자 생계안정 직접 지원

지역고용둔화 대응 국비 70억 구직촉진·취업성공수당 등 추진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0억 원을 확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고용 위기 업종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기불황과 관세조치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고용둔화가 발생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도비 8억 원을 매칭해 총사업비 78억 원 규모로 근로자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집행 기준을 마련해 8월부터 석유화학·철강 업종 근로자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 △기속

사 임차 지원사업이다.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은 석유화학업종 위기 근로자의 고용 회복과 고용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150만 원을 2800여 명에게 선착순 지원한다.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은 지역 석유화학·철강산업 근로자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업종 일용·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 등 40만 원을 7000여 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은 고용둔화업종(석유화학·철강)에 취업하거나, 고용둔화업종에서 타업종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근로자 21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과 별도로 4월부터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여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석유화학 및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1인 최대 40만 원의 건강복지비(건강검진비·피복비·체육활동비 등)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전남여수산학융합원(jyu.or.kr·061-659-7796)에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지원 대상 860명 중 556명이 신청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며 “석유화학·철강산업이 다시 살아나 고용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모든 시민에 소비쿠폰 18만~53만원 지급

1차 오는 21일~9월12일 신청 2차 9월22일~10월31일 접수 신용·체크·광주상생카드도 지급

광주광역시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는 오는 21일~9월12일까지 일반 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9월 22일~10월31일까지다. 2차 지급 관련 세

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광주상생카드(선불) 중 선택해 지급된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30일까지 광주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광주상생카드(선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아울러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광주는 행 역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광주상생카드 할인 정책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디지털 전환·우수상권 육성 △특례보증확대(1700억원 규모)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최대 70만원) 등 4대 전략, 37개 사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